

# 전통 지역문화예술 복원에 대한 응시와 경계\*

김주희\*\* · 박은혜\*\*\*

I. 서론	IV. 결론
II. 산대놀이의 개념 및 발전	참고문헌
III. 단절된 산대놀이의 재건과 재현	Abstract

## I. 서론

현재의 산대놀이는 중부형의 탈춤가면극을 일컫는 말로서, 조선 때에는 왕의 환궁이나 중국사신을 맞이할 때 행해졌던 화려한 인기공연물이었다. 산대놀이는 상당한 격조를 지닌 우리의 중요한 전통예술이기 때문에, 송파와 양주의 산대놀이는 일찍부터 무형문화재로 인정되었으며 산대놀이가 존재했던 지역에서는 이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은평구도 20세기 초 산대놀이의 중심지(녹번, 구파발)로서 구파발산대놀이 재건을 위해 관심을 갖고 있다. 구파발이 조선시대 화려한 볼거리였던 산대놀이의 본고장이었음은 송석하, 최상수, 심우성, 전경욱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sup>1)</sup> 하지만 현대 구파발 산대놀이 관련 자료는 1935년 최상수가 찍은 산대탈 20점과 산대탈제작자 지성복과 찍은 사진 1장, 2007년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2점의 탈이 전부였다. 구파발 산대놀이 복원과 관련하여 전 고양문화원장 이은만은 “구파발은 옛 고양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양시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서 지역문화 유산 확보에 대한 관심과 의미를 확인 할 수 있다.<sup>2)</sup> 이 외에도 은평향토사회학회장 박상진은 은평구를 대표할 만한 문화 아이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한 글을 기고하였다.<sup>3)</sup> 은평구청에서도 관련자료를 찾는 현수막을 내걸거나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2019년 은평한옥마을박물관에서 열린 「구파발 산대탈」 기획전<sup>4)</sup>에

\* 이 연구는 은평문화재단 2020 지역문화예술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 주저자, 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 교신저자,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강사, eh5800@naver.com.

1) 송석하(1960), 『한국민속고』(서울: 일신사); 최상수(1985), 『한국민속놀이의 연구』(서울: 성문각); 심우성(1976), 『한국의 민속극』(경기: 열화당); 전경욱(2020), 『한국 전통연희사』(서울: 학교재).

2) 이성오(2014. 12. 4.), 사라진 구파발 산대놀이 고양시 복원해야, 『고양신문』,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20>, 2020. 11. 14.>.

3) 박상진(2014. 7. 31.), 구파발 산대놀이 복원에 관한 단견, 『서부신문』, <<http://www.seobunews.co.kr/1636>, 2020. 11. 14.>.

4) 이 전시는 2019년 9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은평한옥박물관에서 「구파발산대탈」 특별 기획전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는

서 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러 학자들과 행정적 노력 그리고 비교적 정확한 사료들에도 불구하고 구파발 산대놀이의 복원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이다.<sup>5)</sup> 하지만 언론과 지역재단을 통해 복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복원의 과정이 본격화된다면 막대한 예산 투여가 불가피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것으로, 탈춤과 같은 전통무형문화 재건에 있어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산대놀이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문제는 이재필의 연구에서 무형문화재제도의 원형의 방침의 근거가 갖는 한계성을 지적하고 전형의 방식을 통해 지속적인 보존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sup>6)</sup>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전승되고 있는 양주 및 송파의 산대놀이와 재구성의 과정을 거쳐 공연되고 있는 퇴계원, 애오개 산대놀이를 알아보고 전문가 3인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파발산대놀이 복원에 대해 제안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산대놀이 속에서 춤의 기능과 특징을 추출하려 시도하였으며 복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건과정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난점들을 다각도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산대놀이의 개념과 관장했던 기관을 알아봄으로써 이것이 관주도로 이루어지던 조선시대에서의 맥락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후에는, 20세기 중순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주와 송파의 산대놀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1990년대 말과 2000년대에 각각 재건된 퇴계원과 애오개 산대놀이의 복원과정 역시 알아봄으로써, 현대적 복원과 재현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일별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원로예술인 무세중과 전통연희연구자 전경옥, 신진 전통연희자 김지훈을 인터뷰하여 구파발산대놀이의 재건에 대한 의견들을 참고하였다.<sup>7)</sup> 연구에는 산대놀이 관련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논문, 신문기사 등을 활용한 문헌연구를 비롯하여 상기한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가 연구방법으로 활용되었다.

본격적 논의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칭을 ‘산대놀이’로 통일하여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산대놀이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산대놀이를 이와 구분하기 위해 별산대놀이라 칭해왔다.<sup>8)</sup> 그런데 본산대놀이는 더 이상 전해지지 않고 있는 반면 별산대놀이는 현재에도 연행되고 있다. 이에 산대놀이 복원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별산대를 토대로 오히려 그것의 원류인 본산대놀이의 흔적을 찾아 재건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본산대놀이의 영향을 받았음이 확실하여 문화재로 지정받은 별산대놀이에도 ‘별’이라는 접두사를 공식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본(本)’ 혹은 ‘별(別)’이라는 구분이 공연예술현장에서는 실제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구파발탈을 중심으로 자취가 사라진 본산대놀이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은평구 내 전승문화 복원과 전통의 재창조를 폭넓게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박종일(2019. 9. 9.), 은평한옥박물관 ‘구파발산대탈’ 기획전 개최, 『아시아경제』, <<https://www.asiaje.co.kr/article/region/2019090908514727183>, 2020. 11. 14.>).

- 5) 구파발 산대놀이는 단편적인 기록 외에, 해당 연희의 구성인 춤동작이나 대사 그리고 음악 등에 대한 문헌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직접 공연을 담당했던 연행사 및 목격자를 찾거나 조사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복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6) 이재필(2016), 무형문화재 ‘원형규범’의 이행과 의미 고찰, 『국립문화재연구소』 49(1), p.146.
- 7) 본 연구에서 위와 같은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한 이유는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와 제언을 듣고자 함이었다. 원로예술가 무세중(전위예술가)의 경우 구파발 산대놀이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현장 관련자들의 제보가 있었으며 전통연희연구자 전경옥(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의 경우 산대놀이와 관련한 깊이있는 연구를 선행 바 있으며 은평한옥마을에서의 구파발산대놀이 전시의 감수 및 강연자였다. 신진 전통연희자 김지훈(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원 전문가 수료, 연희공방 음마깡깡 단원의 경우 양주별산대놀이 전승과정에 참여한 이력을 갖고 있다.
- 8) 심우성(1976), p.42.

## II. 산대놀이의 개념 및 발전

본 장에서는 산대놀이의 뜻과 용어의 사용에 대해 개괄해보고 조선시대 관장기관의 업무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산대놀이가 갖는 위상과 가치를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오늘날 국가무형문화재로 선정되어 전승되고 있는 최근의 산대놀이 양상을 정리함으로써 산대놀이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 1. 산대놀이란

산대놀이는 삼국시대에 중국 및 서역 등지에서 유입되었던 산악·백희 또는 산악잡희라 불리던 연희들이 발전하여 오늘에 이른 것으로 여겨진다.<sup>9)</sup> ‘산대’란 산 모양으로 만든 거대한 인공 가설무대를 말하며, 이 산대가 설치된 무대 위와 주변에서는 각종 연희들이 펼쳐졌다.<sup>10)</sup> 여기에서 행해진 볼거리들은 줄타기, 축귀의식무, 환술, 즉흥극, 탈춤, 땅재주 등 매우 다양했다. 조선조까지 사용되었던 ‘산대’라는 용어는 “산대나래’, ‘채봉’, ‘산봉’, ‘오산’ 등 상황과 맥락에 따라 여러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기에서 행해지던 공연물의 경우에도 ‘산악백희’, ‘산대희’, ‘산대놀이’, ‘산대극’, ‘산대도감극’, ‘삼대도감놀이’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었다.”<sup>11)</sup> 이상의 다양한 명칭서술과 다양한 공연 종목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산대놀이는 조선중기까지만 하더라도 관주도의 대형행사였다.

이것이 지금의 산대놀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발전된 것은 조선후기에 이르러서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조선후기 인조 시기부터 영조 및 정조를 거치면서 관주도의 산대놀이는 점차 폐지된다. 이에 따라 궁중의 주문으로 산대놀이를 하던 전문예인들이 민간으로 흩어지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현재 전승되고 있는 산대놀이의 형태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조 때에 중국사신 영접을 위한 산대놀이를 그린 이극돈의 「봉사도(奉使圖)」(1725년) 그리고 정조 당시 문인이었던 강이천(姜彝天)이 어릴 적 남대문밖 산대놀이를 보고 기록한 「남성관희자(南城觀戲子)」(1789년) 등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sup>12)</sup>

서연호에 따르면, “한국 탈놀이의 한 계통을 대표하는 경기도 지방의 전통, 민속 가면극을 통칭해 온 이름”으로 ‘산대탈놀이’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양주별산대놀이나 송파별산대놀이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흔하게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sup>13)</sup> 이 기록보다 30여년이 지난 현재에는 ‘산대놀이’라는 용어가 다른 공연들이 아니라, 양주와 송파 그리고 퇴계원의 별산대놀이처럼 탈을 쓰고 하는 춤과 극만을 일컫는 경향이 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래 산대놀이에는 탈춤과 가면극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공연이 존재했으나 가면극이 민간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기에 다른 것은 많이 사라지고 이것만이 현재에도 지속되는 것은 아닌 가 추측된다.<sup>14)</sup>

학계에서는 궁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서울의 산대놀이를 본산대놀이라, 그리고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 경기도지방에서 형성된 것을 별산대놀이라 지칭한다.<sup>15)</sup> 산대놀이 춤의 특징을 꼽자면 다른 계

9) 전경옥(2020), p.15.

10) 송지원(2018), 조선시대 산대의 역사적 전개, 『한국문학과 예술』 28, pp.121-155.

11) 앞의 책, pp.4-5.

12) 전경옥(2020).

13) 서연호(1987), 전통의 현장, 송파산대놀이, 『월간 문화예술』 1986년 7월, p.6.

14)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홈페이지 산대놀이,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1328>, 2020. 8. 1.>.

15) 심우성(1976), p.42.

통의 탈춤에 비해 “춤사위가 곱고 세분화되어 있으며 탈의 형태가 사실성에 가깝고 놀이과장의 짜임새가 다양하며 놀이꾼은 신분이 낮은 하층민이 주축을 이뤄 서민 오락적인 성격이 짙게 반영되어 있다”<sup>16)</sup>고 할 수 있다. 본산대놀이는 20세기 초까지만 공연된 후 더 이상 전해지지 않고 있다.

## 2. 조선의 산대놀이 관장기관<sup>17)</sup>

### 가. 나례도감(儺禮都監)

나례도감은 조선시대에 나례를 담당하던 임시조직의 이름이다. 나례의 본래적 의미는 잡귀를 몰아내는 의식이었으나 이것이 고려시기 우리나라에 유입될 때에는 제의적인 성격을 지니다가 이후 유희적인 것으로 성격이 변하였다. 현재에는 민간의 탈놀음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sup>18)</sup> 조선에서는 중앙기관에서 이러한 나례를 관장하기도 하였지만 현존하는 별산대놀이에서 여전히 초창기 나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별산대놀이가 상좌춤과 관련된 부분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상좌춤은 산대놀이는 물론 다른 탈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산대놀이에서는 상좌춤이 본격적인 시작의 앞부분에 등장한다. 이러한 상좌춤은 귀신을 물리치면서 신들에게 합장재배하는 춤사위로서<sup>19)</sup> 이후에는 유희물의 성격이 강해졌으나 그 시초가 나례에서 왔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나례는 조선시대에 “부묘<sup>20)</sup> 후 환궁 때의” 의전 의식,<sup>21)</sup> 혹은 중국 사신의 영접 의식에서 연행되던 탈놀음과 줄타기, 땅재주 등의 광대 잡희를 포함한 의식<sup>22)</sup>으로 행해졌다. 나례도감은 산대도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산대(오산과 채봉)을 세우고 연희하던 궁정의 행사를 나례도감에서 관장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나례에서 공연되던 전통연희를 백희(百戲)·가무백희(歌舞百戲)·잡희(雜戲)·산대잡극(山臺雜劇)·산대희(山臺戲)·나례(儺禮)·나희(儺戲)·나(儺) 등으로 불렀다.<sup>23)</sup>

기관으로서 나례도감의 업무는 “산대를 만들고 외방재인을 차출하는 일”<sup>24)</sup>이었으며 좌변나례도감과 우변나례도감이 광화문 밖에 좌산대와 우산대를 만드는 등, 공연준비에 구체적인 과정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이 기구는 원래 존재하던 의금부나 포도청 등에 업무를 추가한 형태의 임시기구였다. 나례도감에서 담당하던 공연은 산대를 만드는 일에만 하더라도 많은 인력과 물자가 투입되던 당시의 화려한

16) 서연호, (1987), p.6.

17) 우리에게 산대라는 용어가 다소 난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산대라는 같은 용어 아래 산대잡극, 산대나례, 산대회, 산대도감, 산대도감극 등과 같은, 여러 단어들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김수경(1997)의 구분에 의하면 고려시대의 산대잡극은 연등회와 팔관회, 사신영접, 부모 환궁, 신감사 영접 등의 행이었다면 산대나례는 연등회, 팔관회가 폐지되고 나례만 남게되자 이 두 행사에서 행해진 산대잡극이 계승된 것을 산대나례, 나희, 산대나희라는 명칭으로 불려졌다. 산대도감극은 고려말 조선전기 성행했던 산대잡극과 구별짓기 위해 사용된 명칭인데 오늘날 산대도감 계통의 극은 산대잡극과 동일하지 않다. 다시말해 ‘산대’라는 명칭의 유사성 때문에 자주 비교되지만 산대잡극은 궁중의식이었으며 산대도감극은 민간의 놀이였으며 내용면에서도 산대잡극은 백희 잡기가 주종이지만 산대잡극은 주로 재담과 풍자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김수경(1997), 연극사의 관점에서 본 산대잡극, 『이화어문논집』 15, pp.396-401.).

18) 윤아영(2012), 『궁정나례의 변천양상과 공연사적 의의』(서울: 민속원).

19) 조선민속대백과사전 홈페이지 상좌과장 참조,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1339>, 2020. 5. 1.>.

20) 3년 상을 끝낸 뒤에 임금이나 왕비의 신주(神主)를 종묘에 모시는 일을 말함(네이버 한국고전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589&cid=41826&categoryId=41826>, 2020. 5. 1.>).

21) 사진실(2014), 인조 이후 나례의 사습과 산대도감제의 흥행활동, 『공연문화연구』 28, p.92.

22) 윤아영(2012).

23) 네이버 전통연희사전 나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25763&cid=56785&categoryId=56785>, 2020. 5. 1.>.

24) 앞의 글.

불거리었다.

그러나 이러한 나례도감은 인조대에 이르러 적폐의 대상이 된다. 인조는 조선왕실의 화려한 의전 중 하나였던 나례도감을 혁파함으로써 인조반정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이를 계기로 궁정에서 나례의 위치가 약해졌다.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나례는 이전과 비해 간소해지고 예산도 감축되었으나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며,<sup>25)</sup> 국내의 나례는 영조 때에 이르러서 제도적으로 폐지되었다. 정조이후에는 중국 사신접대를 위한 나례도 자취를 감추게 된다.<sup>26)</sup>

김재철, 송석하, 아끼바 다카시, 이두현과 같은 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인조 이후, 나례가 폐지”되는 것에 주목하면서 “나례도감에 예속되어 있던 배우들이 민간 흥행에 주력하게 되었다”<sup>27)</sup>고 본다. 즉, 이 시기를 기점으로 궁정재인들이 민간으로 흩어져 산대극이 지방에도 정착하게 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례도감이 존속하던 시기에도 궁정에 속해있지 않던 외방재인들도 존재했으므로 이상의 시각이 나례의 민간 확산과 정착에 설득력있는 견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사진실은 나례가 민간으로 확산된 데에는 이상의 조선왕실의 제도적 조치와 더불어 당시에 민간의 오락 수요가 증가했던 시대적 상황도 주효했다고 본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나례도감에서는 산대놀이의 공연준비 외에도 재인들을 관리하고 단속하는 금란(禁亂)의 업무에 상당히 집중하였다는 것이다.<sup>28)</sup> 이러한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당시 공연에 투입된 재인들은 편놈<sup>29)</sup>이나 반인<sup>30)</sup> 혹은 관노<sup>31)</sup>와 같은 하층민이었다는 점이다. 이상의 하층민이 조선의 임금과 가까운 곳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임금의 신변 보호와 질서 유지가 중요”했음은 것이다.<sup>32)</sup> 둘째, 공연자 대부분이 이러한 하층민임에도 불구하고 궁정에서 폐기하기 시작한 나례가 민간에 퍼질 수 있었던 데에는 “공연예술에 대한 민간의 수요가 크게 증대되어 통제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반영”<sup>33)</sup>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나례도감이 관장했던 산대놀이가 민간에게도 얼마나 인기있는 공연물이었는지를 알려준다.

## 나. 산대도감(山臺都監)

산대도감은 조선시대에 대규모 나례를 행할 때 인력 동원, 물자 동원, 설치물 제작 등의 일을 전체적으로 관장했던 임시 기구이다.<sup>34)</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례 의식을 관장하는 기구로 나례도감이 널리 쓰였음에도 산대도감이라는 명칭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는 대규모 나례에서 산대(山臺)라는 무대 장치가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산대도감에서는 산대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조달하는 일, 장인(匠

25) 사진실(2014), pp.93-97.

26) 앞의 책.

27) 앞의 책, p.86.

28) 앞의 책, p.102.

29) 송석하에 따르면 편놈은 포도군사에 예속되면서 땅재주꾼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아끼바 다카시는 궁중에서 천역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표기하였다(사진실(2014), p.140.).

30) 전경옥(2020)에 따르면, 반인은 “안향이 기증한 사노비의 후손, 소를 도살하고 판매하는 재인, 쇠가죽과 쇠기를 판매 등 상업활동 하는 상인, 전통연연회의 연기자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고 한다(전경옥(2020), p.292.).

31) 손태도(2002), 본산대 탈놀이폐에 대한 시각, 『고전희곡연구』 4, pp.135-177.

32) 사진실(2014), p.48.

33) 앞의 책, p.145.

34) 이정희, 조선왕조실록 산대도감, <[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5238](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5238), 2020. 10. 24.>.

人)을 동원하여 산대를 제작하는 일 등을 관리하였다.<sup>35)</sup>

조선시대의 중앙정치체제는 상설관서인 ‘의정부-6주체제’ 중심의 중앙 집권적 관료체제인데, 여기에서 도감의 기능은 이상의 상설관서가 처리할 수 없지만 “국가 역량이 집중되어야 처리할 수 있는 주요한 사안이었던 의례, 토목, 기타(신분, 외교, 음악, 공신, 출판)를 도맡아 처리하였다.<sup>36)</sup>” 이러한 조선시대의 도감은 고려시대의 행정 운영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지만 도감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세조대의 관제개혁인 『경국대전』체제 이후 16세기 들어서면서 의례나 토목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되었다. 이동 가능한 바위가 달린 대산대는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5층 규모 정도로 높이가 60자 즉, 18m 정도에서 90자 즉, 27m 정도이며 산의 외형을 본떠 기암괴석이 첩첩한 산의 모양을 여러 층으로 무대를 구성하였고 목적과 용도에 따라 예산, 현가산대, 다정산대 등 다양한 모양으로 각각 제작되었다 한다.<sup>37)</sup> 거대한 규모로 제작한 이유는 산대의 크기가 왕의 위상을 나타내고 중국사신을 모시는 태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의례와 토목 같은 도감이 설치되어 특별하게 준비할 수 밖에 없었다.

조선 후기(1784년)로 가면서 국가가 담당했던 산대 제작을 폐지하고 산대 관련 시행 주체가 민간으로 이동하면서 그 양상이 바뀌게 되었다.<sup>38)</sup> 송지원이 밝힌 민간으로 바뀌게 된 요인은 첫째, 무대제작을 위해 엄청난 물력과 수천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야 했기 때문에 제작비에 대한 부담이 높았다. 둘째, 제작 담당부서 간의 경쟁이 심해 여러 문제가 야기되었다. 셋째, 주재료가 나무, 종이, 천과 같다 보니 화재 위험성이 높았다. 넷째, 조선조 성리학 사회에서 부정적 시선이 높았다. 다섯째, 재목조달 및 장인 동원의 어려움이 있었다. 여섯째,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조선 후기 국가적 규모의 산대는 사라지고 소규모 산대만 유지되었다.<sup>39)</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에서 관장했던 나례와 산대는 조선후기에 폐지되었지만, 도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이를 담당하게 하고 국가의 주요 재정과 인력을 동원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에서 산대놀이의 문화적 중요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3. 국가무형문화재 산대놀이

이처럼 조선 궁중의 영향 하에 있었던 산대놀이는 조선후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민간놀이로 발전하여 성행했으나 신분구조와 시장의 변화 그리고 일제치하 등의 요인으로 인해 명맥이 단절되었다. 현재에는 이것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전해지는 양주산대놀이와 송파산대놀이 모두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전승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들 산대놀이의 유래를 알아보고 춤을 중심으로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조선후기 산대놀이의 유산이 현재에는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한다.

#### 가. 양주산대놀이

『동아일보』 1957년 11월 9일자 민속학자 최상수의 글을 보면 “가면극은 최근 년에 와서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 쇠퇴하여 전기 몇몇 처에는 연희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없게 되었으나 다만 양주 구읍에서만

35) 앞의 글.

36) 나영훈(2014), 조선전기 도감(都監)의 조직과 기능,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pp.41-42.

37) 송지원(2018), pp.3-5.

38) 앞의 책, p.19.

39) 앞의 책.

간신히 그 명맥을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다”라고 기술하면서 각 과장의 명칭과 춤 등을 소개하였다.<sup>40)</sup> 그러면서 그는 “양주의 산대 가면극이 산대도감극하고는 계통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으며 양주 구읍 사람들이 본산대에서 노는 연기만을 배워왔을 뿐이다”라고 밝히고 있다.<sup>41)</sup> 이러한 최상수의 글은 오늘날 양주산대 연희자인 김지훈도 “양주산대 춤사위들은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전승되어 왔다”고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다.<sup>42)</sup>

정형호는 연희자 김성대의 증언과 이두현의 조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김성대에 의하면 “양주에서 산대놀이가 시작되기는 약 360-370년 전 1613년 임란 당시 진어사 겸 목사인 유척기(俞拓基)가 관심을 위로하기 위해 한양에서 본산대를 초청해 매년 4월 8일, 5월 단오, 팔월 추석, 국경일, 기우제 등에” 공연하였다고 밝힌다.<sup>43)</sup> 이두현은 1958년 조사에서 박준섭(1886-1970)과 김성태(1907-1970)의 제보를 중심으로 이 놀이가 약 200년 전에 양주에 정착되었다고 본다. “양주골에서는 200년 전부터 해마다 주로 사월 파일과 오월 단오에 한양 사직골딱따이패(백정, 상두군, 건달로 구성)를 초청하여 산대놀이를 놀게 하였는데 그들은 지방순회를 핑계로 약속을 어기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불편을 느낀 나머지 양주골 관아의 하리배(아전) 중 신명이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사직골딱따이패를 본떠 가며 제작하고 실연한 결과 그 성과가 나쁘지 않아 그 뒤부터 발전시켜 내려온 것”이 양주산대놀이이며 가면제작자였던 이을축을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전한다.<sup>44)</sup> 이두현의 글은 최상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양주산대가 자체적으로 탈 제작을 시도하였으며 춤이나 연기는 본산대의 것을 흉내내 따라했음 동일하게 거론하고 있다.

서연호(1987)의 글에서는 조종순의 증언을 토대로 양주산대가 구파발산대의 영향을 받았음을 주장한 임석재의 “양주에서 구파발산대패를 초청하여 놀려고 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게 되자 양주의 본바닥 사람들이 스스로 탈을 만들고 춤을 추어 별산대를 놀게 되었다”는 의견을 인용하고 있다.<sup>45)</sup> 그러면서 정형호는 양주산대가 구파발산대, 사직골딱따이패, 애오개산대에서 받은 영향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닌 여러 곳을 교섭대상으로 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춤과 재담, 노래, 몸짓을 한두 해에 익힐 수 없기 때문에 여러 해에 걸쳐 수용하고 정착되었으며 이는 서로 연희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며 특히 애오개나 사직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한다.<sup>46)</sup>

19세기 산대놀이를 정착시키고 전승을 주도한 계층은 관과 밀접한 하급관리나 관속들이며 시대에 따라 “관과 민의 역학의 변화, 생업의 변화, 역사적 사건에 대응 방식, 상업성의 여부, 마을신앙과의 관련성, 지역성과 탈지역화의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가 일어났다.<sup>47)</sup> 양주산대의 전승은 비교적 현대화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인 김지훈은 2002년 모듬

40) 최상수(1957. 11. 9.), 산대가면극의 사적고찰, 『동아일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7110900209204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7-11-09&officeId=00020&pageNo=4&printNo=10811&publishType=00020>, 2020. 11. 14.>.

41) 앞의 글.

42) 김지훈 인터뷰(2020. 9. 12.).

43) 김성대 채록본(1973), 양주별산대놀이 연희본, 『창작과 비평』(서울: 창작과 비평사); 심우성(1976), 『한국의 민속극』(경기: 창비), p.43(정형호(2008), 『한국 전통연희의 전승과 미의식』(서울: 민속원), p.290 재인용).

44) 이두현(1969), 『한국가면극』(서울: 한국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p.205(정형호(2008), p.291 재인용).

45) 앞의 책, p.293; 서연호(1987), 재인용.

46) 앞의 책, p.293.

47) 앞의 책, p.289.

깨끼<sup>48)</sup> 제작 초기에 배웠던 연희자이다. 그는 참여 과정에 대해 “고등학교 2학년 때 양주산대 놀이 보존회 전수 장학생으로 활동하던 시절, 석종관 전수 조교님께서 모듬깨끼라는 것을 창안해 내신거구요. 전수자들에게 그 춤을 알려주시고, 저희는 그 춤을 따라서 학습을 하고 이렇게 했던 과정들이 진행되었던 시기였다”라고 말한다. 석종관이 모듬깨끼를 창안한 이유에 대해 김지훈은 “돌아가신 김상용 예능보유자 선생님께서 활동하시던 시기가 탈춤 부흥기라고 흔히 말하던 시인데 전국의 대학생들이 춤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왔어요. 각 과장을 배우면서 춤을 하나 가르쳐주고 대사를 다시 하고 또 다시 춤 하나 가르쳐주고 하려니까 진전이 없어서 과장에 나오는 춤들을 하나로 묶어서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기본춤 사례가 된 거고 깨끼춤이라고 일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석종관 전수 조교님이 볼 때 빠져있는 기본 사위들이 있어 전 사위들을 한 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기본춤의 확장판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것이라고 들었어요”라고 말한다. 이것으로 볼 때 양주산대놀이의 경우 교육의 편리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통연희의 구성을 재구조화하여 후세대에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주산대 놀이 안에서의 춤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서연호는 “양주탈놀이의 춤은 우아하고 섬세한 중부지방의 무용적 전통을 전형적으로 계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춤 사위가 매우 분화되고 종류도 다양하며 한국 탈놀이의 춤을 대표 할 만 하다”라고 말한다.<sup>49)</sup> 이두현도 “양주별산대놀이의 춤사위 속에서 한국민속무의 기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춤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50)</sup>

정범태가 정리한 양주산대놀이가 기본 춤사위는 춤을 추려고 문구를 부르는 것으로 장단을 부르는 춤인 ‘불림사위’와 흥을 돋우고 상대방을 휘치려 하는 춤 ‘빗사위’, 주변을 살피는 춤으로 상대방과 맞춤 또는 싸울 때 사용하는 춤 ‘고개잡이’, 뼈마디 마디의 흥을 풀어내기 위한 춤 ‘깨끼’, 탈곡하는 동작을 묘사하는 춤 ‘깨끼리’, 명석을 돌돌 말 듯, 자반을 뒤집듯, 몸을 뒤집는 춤 ‘명석말이’, 허공에 손(장삼)을 휘날리며 뒷걸음치는 춤 ‘곱사위’, 방문을 열어 제치는 것을 묘사한 춤 ‘여단이’, 무엇인가 쫓아내리려하는 춤 혹은 벌과 나비가 꽃에 앉으려는 춤 ‘너울질’로 크게 구분된다.<sup>51)</sup>

양주산대놀이의 춤 중에서도 박인수는 깨끼춤을 강조하면서 그 흔적이 적게 남아있음을 안타깝게 느낀다고 연구에서 밝힌다. 깨끼춤에 대해 김지훈은 “타령 춤에 추는 깨끼춤은 그 원리가 운동에너지, 그다음에 만들어지는 그런 원리라고 보는 게 좋겠죠. 호흡과 원리가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여러 가지 춤들이 만들어졌어요. 하나하나 만들어진 춤들을 다시 해체하면 결국은 춤사위 하나하나 마다 기본 호흡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끼, 깨끔은 매우 중요한 춤사위이고 다시 해석하면 옛 탈춤에서 깨끔질은 매우 중요한 호흡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또한 흔적이 적게 남아 있음에 대해서는 “양주산대 춤사위들은 복원의 개념이 없죠.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계속 정립되고 정리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실된 것들이 있어요. 석종관 선생님이 저한테 대충 흥내내신 것만 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외우진 않아서 지금 전승되고 있진 않아요. ‘분칠을 하거나 이런 것을

48) 최근 2002년에는 기본춤의 9가지 동작을 중심으로 8과장 8경에 포함되어 있는 깨끼식 춤 사위를 모아 모듬깨끼를 구성하여 공연 및 전승에 활용하는 등 현재까지도 깨끼춤의 전승을 창조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박인수(2018), 양주별산대놀이 깨끼춤의 전승양상 고찰 -‘기본춤’과 ‘모듬깨끼’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54, pp.268-269.).

49) 서연호(1987), p.44.

50) 이두현(1994), pp.207-208.

51) 정범태(2008), 『한국의 춤, 백년 2』(서울: 눈빛), p.71; 박인수(2018), p.274 재인용.



화장하는 동작을 묘사해서 화장무다'라고 얘기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은 양주산대놀이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한다. 김지훈의 인터뷰를 통해 전통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변화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 나. 송파산대놀이

송파산대놀이는 본산대놀이의 영향을 받은 별산대놀이로서,<sup>52)</sup> 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로 1973년에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양주산대놀이와 함께 중부지방의 산대도감계통을 잇는 탈놀이이다. 송파산대놀이의 성립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점에서 의견이 모아진다.

첫째, 송파산대놀이는 송파가 조선후기까지 대표적 상업지였다는 역사를 통해 탄생된 “홍행주의적 연희”<sup>53)</sup>라는 점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서연호, 이병욱, 사진실, 전경욱 등의 연구자들은 송파산대놀이가 농업보다 상업과 관련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송파는 각 지방 상품을 집결시켜 항상 개시하는 상업도시였고, 서울의 특권적 상업에 위협을 주는 서울 근교 상업도시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강한 곳이었다.”<sup>54)</sup> 이곳은 조선시대 큰 나루터와 향시(鄕市)가 있던 지역 중 하나로서 서울과 경기 일원의 주요 상업지역이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특히 상인들과 선원들이 드나들던 곳이었다. 따라서 송파는 조선후기까지 왕성하던 경제력을 바탕으로 산대놀이와 같은 볼거리 풍부한 연희가 흥행하기 좋은 곳이었다. 서연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송파놀이꾼들의 연령층으로 보았을 때 늦어도 19세기 후반까지는 탈놀이가 성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 경기와 함께 성황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55)</sup>

둘째, 송파산대놀이의 현대적 재건에 구파발산대놀이 연행자가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사실이다. 1925년에 한강대흥수로 송파의 옛 모습이 살아지면서 “큰 규모의 탈놀음을 갖지 못했고, 조영완이 제작해 보관하고 있으면서 명절날이나 술자리에서 뗏이 어울려 탈을 가져다가 놀곤 하였다”고 전한다.<sup>56)</sup> 이후에는 “돌말이(석촌)에서 한유성, 이범만 등이 송파의 윤종현을 데려와 전수하였고, 6.25이후에는 송파의 허호영이 앞장서서 재건”<sup>57)</sup>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송파산대놀이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때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00년대 초 허윤이 구파발산대 윤희중(1840-1923)을 초빙하여 재건하였다”<sup>58)</sup>고 한다. 허윤이라는 인물은 허성백 혹은 허성복<sup>59)</sup>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허호영<sup>60)</sup>의 부친이다.<sup>61)</sup> 허호영은 이두현의 조사보고서 작성에 주요한 증언자로서 6.25이후 송파산대놀이 재건에 앞장섰던 인물이며, 무형문화재 지정당시 초창기 연희자로 기록되었으며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다 작고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구파발본산대놀이의 영향은 송파산대놀이에 상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52) 전경욱(2020), p.353.

53) 서연호(1986).

54) 조동일(1975), pp.65-66; 국립문화재연구소(2006), p.18 재인용.

55) 서연호(1986).

56) 국립문화재연구소(2006), p.20.

57) 앞의 책, p.27.

58) 이두현(1973), 국립문화재연구소(2006).

59) 국립문화재연구소 10쪽과 29쪽에 허성백 또는 허성복으로 표기되어 있음.

60) 허호영은 이두현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시, 조사보고서 작성에 주요한 증언자로서 6.25이후 송파산대놀이 재건에 앞장섰던 인물이자, 말뚝이와 가면제작 예능보유자였다.

61) 허호영의 선친이 허윤씨라는 것은 중앙일보 기사에서 확인가능함(『중앙일보』, 1975. 1. 15. 종합4면, 민속 경기 협회 허호영 회장, <<https://news.joins.com/article/1396385>, 2020. 11. 9.>).

이처럼 송파산대놀이는 서울경기의 인기있던 구경거리 구파발산대놀이를 송파지역에서 계승한 탈놀이라고 할 수 있다. 송파산대놀이에서도 산대놀이 계통 가면극에서 공통으로 갖고 있는 “벽사 의식무, 양반과장, 파계승과장, 할미과장”<sup>62)</sup>이 나타난다. 이러한 과장 속에서 기본 춤사위로 “화장무, 여다지, 명석말이, 곱사위, 깨끼리, 돌단이, 건드렁, 거울보기 등”<sup>63)</sup>이 있으며, 염불장단의 거드름춤과 굿거리장단의 허튼춤 그리고 타령장단의 깨끼춤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이러한 구성을 갖고 있는 송파산대놀이 춤은 다른 탈놀이와 비교하여 섬세하고 다양한 종류를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sup>64)</sup> 또한 비교적 양식화되어 있으며 “전아하고 무게 있는 답지무(踏地舞)”, “손놀림이 중심이 되는 손춤사위”가 특징적이며,<sup>65)</sup> 동일한 계통의 양주산대놀이에 비해 깨끼춤과 걸음걸이춤이 발달했다<sup>66)</sup>고 여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평가와 특징들은 현재의 송파산대놀이의 모습을 통해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민간흥행물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송파산대놀이에서의 옛 춤 모습은 “자생적으로 흥과 신명에 의해 마음대로 춤추고 놀았던 것”<sup>67)</sup>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불확정적인 탈춤 양식과 더불어<sup>68)</sup> “이계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연을 일 년에 한 두 번”<sup>69)</sup>했었을 것이라는 사실 역시, 현재의 춤사위는 과거의 것과 상당부분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송파산대놀이 춤사위는 명확하게 구파발산대놀이와 연관된다는 기록이 전해진다는 점에서 이미 전승이 단절된 본산대놀이에서의 춤의 흔적이 남아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 III. 단절된 산대놀이의 재건과 재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중앙의 산대놀이에서 직접 연희를 담당했던 사람들과 관련된 본산대놀이는 지난 세기 초에 이미 명맥이 끊어졌다. 그러나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별산대놀이는 20세기 중반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오늘날까지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대놀이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본산대놀이에 대한 학계와 지자체 그리고 공연계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의 산대놀이 복원사례들은 이처럼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하겠다. 이에 본 장에서는 20세기 말부터 최근까지 일어나고 있는 산대놀이 재건과 재현에 관련된 두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구파발 본산대놀이의 복원에 있어 참고할 만한 지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62) 전경옥(2020), p.357.

63) 국립문화재연구소(2006), p.85.

64)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포털 홈페이지, 송파산대놀이, <[https://www.culture.go.kr/knowledge/encyclopediaView.do?vvm\\_seq=547](https://www.culture.go.kr/knowledge/encyclopediaView.do?vvm_seq=547), 2020. 9. 3.>.

65) 국립문화재연구소(2006), p.257.

66) 서연호(1986).

67) 국립문화재연구소(2006), p.84.

68) 하진숙(2015), 탈춤의 불확정적 형식과 상호수행성의 관계, 『무용예술학연구』 52(1), pp.129-147.

69) 전경옥 인터뷰(2020. 7. 27.).

## 1. 퇴계원산대놀이

퇴계원 산대놀이는 2010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52호로 지정되었다.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그 복원 과정은 1989년 산대놀이 연구를 하는 김봉준(보존회 총무)이 퇴계원 지역민이었던 민경조(보존회 회장)를 만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실제 확인 작업과정에서 퇴계원 산대놀이를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는 1911년생 백항봉, 1912년생 최사운의 고증을 받아 과거 산대놀이에 참여했던 노인을 찾아냈고 대사 채보와 시연 녹화와 같은 기록, 복원 과정을 거듭하였다.<sup>70)</sup> 1990년에는 전통 민속에 관심이 있는 20여 명을 모아 보존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복원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전경욱과 서연호 등의 전통 연희 전문가들로부터 학술적 뒷받침도 받았다.<sup>71)</sup> 1997년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1865년 무렵 제작되어 1920년대에 수집된 16점이 가면이 발견되었고 그중 먹중 탈에는 ‘양주군 퇴계원리 산대도감 사용 경복궁조영당시(楊州郡退溪院里 山臺都監 使用 景福宮造營當時)’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sup>72)</sup> 이는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영건도감(營建都監)을 설치한 때인 1865년 즈음에 쓰던 탈일 것으로 추정되어 복원의 타당성을 높여 주었다.<sup>73)</sup> 현재 퇴계원 산대탈은 19종 23개의 탈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존회 회원이자 조각가 김기철은 이 탈들을 복원하여 현재 퇴계원 산대놀이에서는 복원된 탈을 사용하고 있다.<sup>74)</sup> 이후 꾸준한 공연과 수정과정을 거쳐 1990년대 중반에 완성된 형태를 갖추고 1997년에는 퇴계원면 복지회관에 전수관을 마련하면서 전승 기반을 갖췄다.<sup>75)</sup> 1997년 5월 제1회 퇴계원산대놀이 탈 및 의상복원 재연 공연을 한 뒤 현재 12과장 복원을 완료하여 활발한 전수작업과 공연활동을 해나가고 있다.<sup>76)</sup> 이것으로 볼 때 퇴계원 산대놀이가 복원 가능했던 첫 번째 요인은 관련 고증인의 참여와 기록된 탈이 발견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퇴계원 산대놀이는 경기도 양주와 지역이 매우 가까워 두 지역의 연희자들의 교류가 활발했다. 퇴계원 산대놀이의 시작도 양주 별산대놀이에서 배워 와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퇴계원에서 가면극을 놀면 주내면 유양리에서 양주 별산대놀이의 연희자들이 와서 합동으로 공연하고, 주내면에서 가면극을 놀 때는 퇴계원의 연희자들을 초청해 갔다고 전한다.<sup>77)</sup> 퇴계원 산대 놀이가 복원 가능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은 무형문화재로 등록되기까지 양주산대와의 긴밀한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논의하게 될 애오개 산대놀이와 비교해 퇴계원 산대놀이의 복원과정에서 논란이 적었던 것은 바로 이 두 요인에 의해서 일 것으로 추측된다.

퇴계원산대놀이는 일반의 가면극과 같이 앞놀이·본놀이·뒷놀이의 3단계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sup>78)</sup>

70) 권상은(2010. 8. 23.), “퇴계원 산대놀이 살려내자” ... 20년 열정 바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2010/08/22/2010082200939.html>, 2020. 11. 14.>.

71) 앞의 글.

72) 문화재청 국사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 퇴계원 산대놀이,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2223100520000&pageNo=1\\_1\\_1\\_1](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2223100520000&pageNo=1_1_1_1), 2020. 11. 14.>.

73) 앞의 글; 전경욱(2007),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퇴계원산대놀이,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1425>, 2020. 11. 14.>.

74) 권상은(2010. 8. 23.).

75) 남양주 문화원 홈페이지, <[http://www.nyj.or.kr/html/page.php?sub=sub04\\_03\\_01](http://www.nyj.or.kr/html/page.php?sub=sub04_03_01), 2020. 11. 14.>.

76) 김영조(2007. 6. 4.), 익살과 해학, 퇴계원산대놀이를 아십니까?, 『대자보』, <<http://www.jabo.co.kr/20458>, 2020. 11. 14.>.

77) 전경욱(2007),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퇴계원산대놀이,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1425>, 2020. 11. 14.>.

78) 앞놀이(길놀이)는 대동놀이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제의적 성격과 신명놀이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는 마을 전체의 구성원에게 놀이가 있음을 알리고 거기에 정서적 동참과 호응을 유도하는 것이다. 대동놀이와 신명놀이는 길놀이에서 구체화된다. 또 길놀이를 마친 후 본놀이에 앞서 유교식 고사를 지내는 것은 가면극이 제의적 엄격성에 기초하고 있을

본산대놀이와 공통적으로 파계승·물락한 양반·하인·영감·할미·첩·사당 등이 등장하여 현실 폭로와 풍자, 호색, 웃음과 탄식을 보여 주는 가면극으로서 모두 열두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sup>79)</sup> 퇴계원 산대놀이는 다른 산대놀이에 비해 춤사위의 선이 굵고 힘찬 것이 특징이다.<sup>80)</sup> 이러한 복원 과정을 인정받아 퇴계원 산대놀이는 문화재청이 202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한국의 탈춤’<sup>81)</sup> 신청 내용에 함께 구성되었다.<sup>82)</sup>

## 2. 애오개산대놀이

애오개산대놀이는 애오개 일대에서 성행했던 산대놀이를 2000년대에 재현한 것으로, 문화관광부 주최의 2005년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아리랑상을 수상한 바 있다.<sup>83)</sup> 약 18세기 경에 형성되어 서울 및 경기 일대에서 성행했던 본산대놀이의 지역 중 하나가 애오개이다. 애오개는 서대문 충정로에서 마포구 아현동을 지나는 고개로서, 조선 후기에는 매우 큰 규모의 시장이었던 칠패시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은 민간놀이로서 산대의 흥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애오개산대놀이에 대해 초기 민속학자 “송석하는 구파발이 원조고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애오개로 넘어”가서<sup>84)</sup>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기술했던 강이천(姜彝天)의 『남성관희자(南城觀戲子)』(1789)에 기록된 산대놀이는 애오개산대놀이 혹은 구파발산대놀이를 보고 기록한 것으로 추측된다.<sup>85)</sup> 이상의 애오개산대놀이는 20세기 초까지 성행했던 것으로 여겨지나 다른 본산대놀이들과 마찬가지로 전승이 단절되었다.

서서울향토문화연구원을 운영하던 향토사학가 홍현일이 본산대의 문화적 가치를 알게 된 후 애오개 지역에서 성행했던 본산대놀이의 재현을 결심하였다고 한다.<sup>86)</sup> 이후 그는 문헌을 조사하고 일제시대 본산대놀이를 목격한 사람을 찾기 위해 구청을 찾아다니고 호적을 뒤지며 노인정들을 방문하면서 수소문했다고 한다.<sup>87)</sup> 그로부터 1년 만에 나름의 성과를 거뒀는데, 현재 북아현동 능터에서 산대놀이를 했

을 말해준다. 또한 앞의 제의적 성격은 뒷놀이의 미알할미 원혼을 달래는 무당식 굿놀이에서 상호 대응을 이룬다. 무당 굿놀이를 통해서 신명풀이와 한풀이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남양주 문화원 홈페이지).

79) 전경옥(2007),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퇴계원산대놀이,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1425>, 2020. 11. 14.>.

80) 앞의 글.

8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 신청된 ‘한국의 탈춤’은 양주별산대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2호), 통영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6호), 고성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7호), 강릉관노가면극(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북청사자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 봉산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동래야류(국가무형문화재 제18호), 강령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 수영야류(국가무형문화재 제43호), 송파산대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 은율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 하회별신굿탈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 가산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73호), 속초사자놀이(강원무형문화재 제31호), 퇴계원산대놀이(경기무형문화재 제52호), 진주오광대(경남무형문화재 제27호), 김해오광대(경남무형문화재 제37호), 예천청단놀이(경북무형문화재 제42호) 등 13개 국가무형문화재와 5개 시도무형문화재로 구성됐다(송병기(2020. 4. 1.),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4010250>, 2020. 11. 14.>).

82) 앞의 글.

83) (재)마포문화재단 마포예술센터 홈페이지, 애오개산대놀이 보존회, <<http://www.mapoartcenter.or.kr/mapoArt/f/jsp/foundation/aeogae.jsp>, 2020. 10. 2.>

84) 전경옥 인터뷰(2020. 7. 27.).

85) 전경옥 인터뷰(2020. 7. 27.).

86) 임정빈(2005. 10. 25.), 잊혀진 전통놀이 복원 가슴뼉뚫, 『세계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126540>, 2020. 11. 10.>.

87) 앞의 글.

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한 노인을 찾아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희본을 구성했으며, 탈과 의상은 전문가들의 고증을 통해 재현해나갔다고 한다.<sup>88)</sup> 이러한 과정 속에서 1994년 ‘애오개본산대놀이보존회’가 발족되었고, 2002년에는 ‘서울본산대 재구성 시연 한마당’을 선보였으며, 2005년에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입선하기에 이른다.<sup>89)</sup>

애오개산대놀이의 재현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춤은 송파산대놀이 이수자가 전수해준 것을, 탈은 서울대박물관 소장의 탈을, 그리고 대본은 양주산대놀이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sup>90)</sup> 이러한 양상은 이미 전승이 끊긴지 오래되었고 생존하고 있는 연희자도 찾지 못하여 관련 자료를 구체화할 수 없었던 현실적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고자, 춤의 경우 애오개 혹은 구파발의 것에서 유래하다는 설이 유력한 송파산대놀이의 것을 그리고 대본의 경우 “조종술(양주산대 연희자)의 구술을 받아 기록한 양지연의 필사본(1930년)의 양주산대놀이 대사가 그 중 오래됐다는 사실에 입각해<sup>91)</sup> 양주산대의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보존회 회장 홍현일 역시 “송파나 양주가 애오개 등 서울 서부지역의 놀이에서 파생된 가지인 만큼, 그 가지들에서 역추적해 애오개의 원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92)</sup> 이상의 과정을 거쳐 현재 ‘애오개산대놀이보존회’는 마포아트센터의 상주단체로 있으면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오개산대놀이가 자체의 원형을 발굴하는 데는 실패하였고, 전승되고 있는 별산대에서 부분들을 가져와 조합한 것이기에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sup>93)</sup> 본산대놀이든 별산대놀이든 이 모두가 산대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정확한 구별의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애오개산대놀이를 통해 전통의 복원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전통의 원형에 대한 전제들이 작용하고 있다. 다른 한국의 전통예술과 마찬가지로 산대놀이의 원형도 조선시대 후기에서 일제치하 초기까지의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본산대놀이가 20세기 초까지 성행하다 사라진 사실과도 맞물려 있다. 때문에 산대놀이의 복원은 성행 당시의 것을 보았거나 연행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어 이들의 기억과 소장물 등을 통해 음악과 의상 그리고 춤동작들을 구체화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퇴계원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대놀이의 전통현장과 관련된 생존자는 1990년대가 마지막 조사기회였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비해 2000년대에 비로소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애오개산대놀이 측은 20세기 초 산대놀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을 풍부하게 찾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산대놀이의 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단절된 애오개산대를 복원하기 위해 흩어져있고 숨어있던 파편들을 찾아 헤맸던 오랜 노력 그리고 현재의 유산을 바탕으로 이를 재구성한 시도는 단절된 전통복원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하겠다.

88) 앞의 글.

89) (재)마포문화재단 마포예술센터 홈페이지.

90) yesno(2005. 9. 20.), ‘애오개본산대놀이’ 전국대회 참가 논란,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105063>, 2020. 11. 2.>.

91) 앞의 글.

92) 앞의 글.

93) 앞의 글.

### 3. 구파발산대놀이 복원에 관한 제언

지금까지 산대놀이의 어원과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현재를 관통하고 있는 산대놀이의 흐름, 또한 최근에 복원된 산대놀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산대놀이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확인하였으며 전통복원과 전승에 있어서 야기되는 현실적 문제들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약 100여 년 전에 단절되고 만 탈춤의 전통인 구파발산대놀이를 재건 및 재현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유형의 것이 없는 무형문화의 경우에도 관련 문헌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구파발산대놀이가 존재했다는 기록들은 존재하지만, 이것의 구체적인 과장구성, 춤동작, 음악, 의상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알 수 없다. 구파발산대놀이 재현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관계자를 수소문해보았으나 이 역시 현재까지 큰 소득은 없었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구파발산대에서 영향을 받은 다른 산대놀이들의 특징을 면밀히 고찰하고 그 속에서 공통된 요소들을 추출하여 이를 본산대놀이의 특징으로 가늠해 보는 일이다.

문헌의 조사 연구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본을 찾아야 하잖아요. 뿌리를 찾아야 되고 그 뿌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계되어서 계속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하나가 만들어져서 ‘이게 복원이야’가 아니라 정확하게 미세한 가닥 일치언정 그 뿌리를 찾아야겠죠. 그것이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작업 속에서 더 좋은 것은 구파발 본산대만의 특징을 찾아야 할 것이구요. (신진 전통연희자 김지훈 인터뷰)

구파발산대놀이 문헌조사는 기록된 문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자료의 발굴 시도, 전승되고 있는 산대놀이 전문가 인터뷰 등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긴 시간을 투자해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구파발산대놀이 원형의 복원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대본과 춤 그리고 의상과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탈놀이에 치중되어 있는 관점에서 벗어나, 축제로의 확장을 제안한다. 구파발 산대놀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여 인터뷰한 원로예술가 무세중에게 구파발산대 관련자들이나 후손을 만나 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만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걸(구파발산대놀이) 복원하려 하지 말고 거기서 배워간 양주도 있고 송파도 있고 애오개도 지금 하고있고 퇴계원도 있으니까 복잡하게 뭘 복원해. 그리고 탈춤만 할 건가? ‘산대문화축제’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산대희의 원조기 때문에 산대희가 탈춤만이 아니고 저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구파발 거를 복원하기 힘든 건 사실이야. 사람이 있나 대본이 있나... 내 생각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구파발 산대놀이 축제’ 혹은 ‘산대 문화축제’ 그렇게해서 하면 좋아요. (전통연희연구자 전경옥 인터뷰)

산대놀이 개념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래의 산대놀이가 여러 가지 공연들을 다채롭게 선보이던 것이었다는 점에서 축제로의 확장은 그 본질에 부합하는 제안이라고 하겠다. 축제는 다양한 콘텐츠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정기적인 행사인 경우가 많기에, 우리 전통예술의 다양함을 보여주면서 이

것이 지닌 문화로서의 가치를 일반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은평지역에서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축제 ‘파발제’<sup>94)</sup>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 이 파발제에 구파발산대놀이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sup>95)</sup>

셋째, 산대놀이의 무대장치이자 중심구조물이었던 산대를 현대적으로 재현해 볼 것을 제안한다.

내가 말하는 건 본산대 문화축제 그러면 ... 중요한 게 아까 그 산대있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딱 하면 본산대 축제가 제대로 되는 거야. 이거 바로 요 앞에 모화관에서 하던 건데 우리가(구파발 연희자들이) 가서 했어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전통연희다 이걸 얘기할 수 있거든. 이걸 지금 설계도 다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만들면 튼튼하게 만드는 거야. 안에는 플라스틱 강한 거로 만들고 기둥은 강철로 뭐 스테인리스라던지. 옛날에는 나무로 했겠지만 지금 뭐하러 그렇게 해. 옛날에 스테인리스 있었으면 당연히 그거로 했지. (전통연희연구자 전경옥 인터뷰)

산대놀이는 산처럼 만든 구조물이었던 ‘산대’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각종 공연물이었음에도, 현재 전승되고 있는 산대놀이에서는 이러한 무대장치를 잘 사용하지는 않는다. 산대는 조선시대에 관장기관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산대놀이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다. 재료구성과 같은 부분은 위의 조건처럼 현 상황에 맞게 구성할 수도 있지만 산대자체를 제작하여 활용한다면, 산대놀이의 재건과 현대적 계승에 일조함과 동시에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산대놀이의 지점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다양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입되어야 한다. 현재 복원에 참여하거나 연구와 연희를 지속하고 있는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이러한 교육이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 예로 연구자 김봉준이 퇴계원 산대놀이를 연구하기 위해 만난 지역민 민경조는 경희대학교 국문학과 재학 당시 풍물반에 들어 송파산대놀이를 배운 경험을 갖고 있었다.<sup>96)</sup> 단순 인터뷰에서 그치지 않고 복원으로 확장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가 대학시절 산대놀이에 대한 교육 경험을 축적하였기 때문이다. 산대놀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 성과를 구축한 연구자 전경옥의 경우도 부친이 북청사자놀음 연희자였으며 연희자 김지훈은 양주지역 출신으로 전수관에서 활동하는 친구의 부친 덕분에 자연스럽게 입문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점에서 송파산대놀이 전수회가 토성 초등학교를 비롯한 구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후세대와 문화유산을 보존, 발전시키는데 있어 고무적인 전통예술 교육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구파발도 지역학교와 관련교육을 시도하여 구파발지역문화유산을 알릴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이른만 전고양문화원장도 조언한 부분이다.

다섯째, 현 세대에게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구축을 제안한다. 보다 많은 이들이 전통에 다가가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해당 정서를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대놀이의 내용 중 하나인 파계승이나 처첩간의 갈등을 풍자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잘 와 닿지 않는 이야기 소재이다. 이것이 조선후기에는 관객의 호응과 이해를 끌어냈을 지라도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94) 199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6년부터 서울시 브랜드 축제로 지정된 바 있는, 서울시 은평구의 대표적 축제이다(위키백과, 파발제, <<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B%B0%9C%EC%A0%9C>, 2020. 11. 2.)).

95) 천안이나 안동과 같은 지역에서도 지역기반문화를 축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조남규(2012), 무용장르를 이용한 지역 축제의 지역경제효과 비교 분석 - ‘천안흥타령춤축제’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39, pp.161-180.).

96) 권상은(2010. 8. 23.).

파계승놀이라고 해서 탈춤에서 빠지지 않는 건데, 그런 걸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그 사건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이해가 안돼요. 정서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서를 담아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것은 현시대에 맞는 사건을 담은 바로 근현대에 있던 사건이나 지금이나 혹은 이 상태로 갔을 때의 미래를 배경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해서 만드는 새로운 재담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대본들이. (신진 전통연희자 김지훈 인터뷰)

이상의 아이디어가 실현되어 다양하고 새로운 대본들이 구축된다면 이에 맞추어 춤과 공연역시 현대에 맞게 재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공연 뿐 아니라 현대적인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역시 제작 가능하다.

여섯째, 산대놀이 속 춤의 위상을 재인식하고 그 가치를 계승 및 확장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깨끼춤은 산대놀이에서 중심을 이루는 움직임이면서 한국춤의 원형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대놀이 학습 현장에서는 춤 자체가 한국전통 연희자들의 몸틀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학습할 때 먼저 춤을 가르치죠. 왜냐면 이 춤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춤이 만들어지는 뭐라 그럴까요 에너지를 먼저 배워야 하잖아요. 우리는 호흡이라고 하죠. 그 호흡에 의해서 춤들이 만들어지고 그 춤에 의해서 또 호흡 안에서 말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춤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호흡을 그 다음에 그 호흡이 익으면 재담. 그래야지 각기 다른 탈춤의 말씨들이 본연의 말맛을 만들어내겠죠. (신진 전통연희자 김지훈 인터뷰)

더불어 전통춤의 특성상 산대놀이에서의 춤은 변화를 거듭해 왔음을 이해해야 한다.

옛날 기록들에는 타령에다 깨끼춤 추는 것 밖에 없어. 근데 그 후로 점점 추가되는 거야... 변하는 거지. 더 멋있게. 타령 가만히 보니까 노장은 원래 그렇게 추더라 말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멋있게 추고 싶은 거지. 노장이 세 종류로 추고 있어 상좌하고 움중도 그렇게 추고 싶은 거지. 그니까 자꾸 늘이는 변하는 거야 멋있게 바꾸고. (전통연희연구자 전경옥 인터뷰)

현재 전승되고 있는 산대놀이에서도 과거의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후에 여러 동작들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깨끼춤의 중요성과 전통의 유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구파발산대놀이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산대놀이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춤에 대한 고민과 확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 IV. 결론

본 연구는 구파발 본산대놀이 복원에 관한 제언을 위해, 본산대놀이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 전승의 과정을 유지하고 있는 양주와 송파 별산대놀이를 알아보고 비교적 최근에 복원의 과정을 거친 퇴계원, 애오개 산대놀이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원로예술가, 전통 연희연구자, 신진 전통연희자 3인을 인터뷰



하였다.

산대놀이는 고려시대부터 국가의 전문 기관이 주도하여 주요행사를 위해 산 모양의 가설무대를 세우고 공연된 다양한 연희를 의미한다. 1784년 인력 동원과 제작 비용의 부담, 조선조 유교 사회의 지속적인 비판 등으로 인해 국가에서 담당하던 산대놀이는 민간으로 흩어지게 된다. 현대 본산대놀이의 원형은 전승, 보존되지 못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발전한 송파산대놀이와 양주산대놀이가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춤사위는 명확하게 구파발본산대놀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미 전승이 단절된 본산대놀이에서의 춤의 흔적이 남아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 2호 양주산대 놀이의 춤사위들은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전승되어 왔으며 현대화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형호의 연구에서는 각 지역 간의 춤과 재담, 노래, 몸짓 등이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여러 해에 걸쳐 변형되면서 자연스럽게 혼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인터뷰에서 무세중 원로 예술가와 김지훈 신진 전통 연희자는 깨끼춤을 본산대 놀이에 있어 중요한 춤사위로 보았다. 전승된 양주산대놀이에서 깨끼춤의 원형이 비교적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의견이 이두현, 정범태, 박인수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하지만 구파발 본산대의 영향을 받은 송파산대의 춤에서는 양주산대와는 다른 춤사위가 남아있지만 그 춤을 구파발본산대의 춤사위로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전통연희연구자 전정옥은 완벽한 복원이 사실상은 불가능함을 지적하였다. 2010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52호에 지정된 퇴계원 산대놀이와 지정문화재에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복원 과정을 거쳐 공연되고 있는 애오개 본산대놀이는 구파발본산대놀이의 복원에 앞서 주목해야 한다. 두 산대놀이는 물론 본산대라는 것이 지금은 사라졌지만 별산대놀이에서 그 원형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 삼아 양주산대와 송파산대놀이의 연희자들을 초청해 재건의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보존회 설립과 전수회관이 구심점이 되어 관련자료 수집과 기록을 바탕으로 고증을 수행한 것, 그리고 지역 정부기관 및 문화재청의 인정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파발본산대놀이의 복원이 효율적 측면과 신뢰도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전정옥 전통연희연구자도 관련 의견에 뒷받침을 해주었다. 그리하여 구파발본산대 복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전통연구에 있어 지속적인 문헌연구 및 관련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정책적 지원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복원보다는 구파발 산대놀이 축제로의 확장을 제안한다. 본산대놀이가 탈놀음 외에도 줄타기, 땅재주 등의 광대 잡희를 포함한 종합연희 성격을 지녔음을 보았을 때 다양한 전통연희놀음의 축제로의 접근이 복원에 비해 용이하다 할 수 있겠다. 셋째, 현대식의 본산대 무대제작이 필요하다. 산대놀이라는 것 자체가 산을 모양의 이동식 무대 제작한 것에서 비롯된다. 현재 본산대 무대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는 산대놀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산대무대의 제작은 차별적인 전통공연예술무대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네 번째, 다양한 학교교육 프로그램으로 진입되어야 한다. 사라져가는 전통 연희에 대한 교육은 생애주기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복원에 참여하거나 관련 연구자, 연희자들은 성장과정에서 이러한 교육의 경험은 전통연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산대놀이 춤에 대한 강조이다. 교육에 있어 가장 쉽게 전달 용이한 부분은 본산대놀이에서의 춤사위이다. 또한 본산대놀이 근본을 깨끼춤으로 강조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참고해 볼 때 춤을 활용한 전승 교육을 제안한다. 여

섯 번째 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구축되어야 한다. 본산대놀이의 주제가 양반사회의 모순이나 타락한 파계승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의 공감요소가 낮은 측면이 있다. 한국민속촌의 경우 걸그룹 춤을 활용한 민속 창작 춤이나 관람자의 체험을 유도하는 시대배역 연기자의 활동이 젊은 세대들의 공감을 얻은 바 있다. 산대놀이도 세대적 공감이 가능한 창작콘텐츠로의 발전과 동화,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콘텐츠 방식으로의 확장이 요구된다.

현재 각 지역문화재단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을 확보하기 위해 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복원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관계자, 문화재단 담당자, 지역문화예술가에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도되지 못했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산대놀이 마다의 춤 동작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전통 연희 춤 연구로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 참고문헌

- 서연호(1987). 『산대탈놀이』. 경기: 열화당.
- 송석하(1960). 『한국민속고』. 서울: 일신사.
- 심우성(1976). 『한국의 민속극』. 경기: 창비.
- 윤아영(2012). 『궁정나례의 변천양상과 공연사적 의의』. 서울: 민속원.
- 이두현(1969). 『한국가면극』. 서울: 한국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 이두현(1994). 『한국가면극』.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병옥(2006). 『중요무형문화재 49호 송파산대놀이』.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대전: 피아.
- 전정욱(2020). 『한국전통연희사』. 서울: 학교재.
- 정범태(2008). 『한국의 춤, 백년 2』. 서울: 눈빛.
- 정형호(2008). 『한국 전통연희의 전승과 미의식』. 서울: 민속원.
- 최상수(1985). 『한국민속놀이의 연구』. 서울: 성문각.
- 한국문화재단(2018). 『제 4회 궁중문화축전 산대자료집』. 서울: 한국문화재단.
- 김성대 채록본(1973). 양주별산대놀이 연희본. 『창작과 비평』, 28: 창작과 비평사.
- 김수경(1997). 연극사의 관점에서 본 산대잡극. 『이화어문논집』, 15: 385-408.
- 나영훈(2014). 조선전기 도감(都監)의 조직과 기능.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 박인수(2018). 양주별산대놀이 깨끼춤의 전승양상 고찰 -‘기본춤’과 ‘모듬깨끼’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54: 265-292.
- 사진실(2014). 인조 이후 나례의 사습과 산대도감패의 흥행활동. 『공연문화연구』, 28: 83-151.
- 서연호(1986). 전통의 현장, 송파산대놀이. 『월간 문화예술』, 1986년 7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손태도(2002). 본산대 탈놀이패에 대한 시각. 『고전희곡연구』, 4: 135-177.
- 송지원(2018). 조선시대 산대의 역사적 전개. 『한국문화와 예술』, 28: 121-155.
- 이병옥(1993). 송파와 양주별산대탈춤의 춤사위 비교연구. 『용인대학교 논문집』, 9: 527-559.
- 이재필(2016). 무형문화재 ‘원형규범’의 이행과 의미 고찰. 『국립문화재연구소』, 49(1): 146-165.
- 조남규(2012). 무용장르를 이용한 지역축제의 지역경제효과 비교 분석 - ‘천안흥타령춤축제’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39: 161-180.
- 하진숙(2015). 탈춤의 불확정적 형식과 상호수행성의 관계. 『무용예술학연구』, 52(1): 129-147.
- 김영조(2007. 6. 4.). 익살과 해학, 퇴계원산대놀이를 아십니까?. 『대자보』. <<http://www.jabo.co.kr/20458>, 2020. 11. 14.>.
- 권상은(2010. 8. 23.). “퇴계원 산대놀이 살려내자”... 20년 열정 바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2/2010082200939.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2/2010082200939.html), 2020. 11. 14.>.
- 남양주 문화원 홈페이지. <[http://www.nyj.or.kr/html/page.php?sub=sub04\\_03\\_01](http://www.nyj.or.kr/html/page.php?sub=sub04_03_01), 2020. 11. 14.>.
- 문화재청 국사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 퇴계원 산대놀이.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2223100520000&pageNo=1\\_1\\_1\\_1](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2223100520000&pageNo=1_1_1_1), 2020. 11. 14.>.
- 박상진(2014. 7. 31.). 구과발 산대놀이 복원에 관한 단견. 『서부신문』. <<http://www.seobunews.co.kr/1636>, 2020. 11. 14.>.

- 박종일(2019. 9. 9.). 은평한옥박물관 ‘구과발산대탈’ 기획전 개최.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region/2019090908514727183>, 2020. 11. 14.>.
- 송병기(2020. 4. 1.).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 『국민일보』.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4010250>, 2020. 11. 14.>.
- 위키백과 파발제. <<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B%B0%9C%EC%A0%9C>, 2020. 11. 2.>.
- 이성오(2014. 12. 4.). 사라진 구과발 산대놀이 고양서 복원해야. 『고양신문』, <<http://www.myg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20>, 2020. 11. 14.>.
- 임정빈(2005. 10. 25.). 잊혀진 전통놀이 복원 가슴뿌듯. 『세계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126540>, 2020. 11. 10.>.
- (재)마포문화재단 마포예술센터 홈페이지. 애오개산대놀이 보존회. <<http://www.mapoartcenter.or.kr/mapoArt/f/jsp/foundation/aeogae.jsp>, 2020. 10. 2.>.
- 전경옥(2007).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홈페이지. 퇴계원산대놀이.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1425>, 2020. 11. 14.>.
- 조선왕조실록 산대도감. <[http://enc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5238](http://enc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5238), 2020. 10. 24.>.
- 『중앙일보』(1975. 1. 15.). 종합4면. 민속 경기 협회 허호영 회장. <<https://news.joins.com/article/1396385>, 2020. 11. 9.>.
- 최상수(1957. 11. 9.). 산대가면극의 사적고찰, 『동아일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7110900209204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7-11-09&officeId=00020&pageNo=4&printNo=10811&publishType=00020>, 2020. 11. 14.>.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포털 홈페이지. 송파산대놀이. <[https://www.culture.go.kr/knowledge/encyclopediaView.do?vvm\\_seq=547](https://www.culture.go.kr/knowledge/encyclopediaView.do?vvm_seq=547), 2020. 9. 3.>.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퇴계원산대놀이.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1425>, 2020. 11. 14.>.
- yesno(2005. 9. 20.). ‘애오개본산대놀이’ 전국대회 참가 논란.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105063>, 2020. 11. 2.>.
- 김지훈 인터뷰. 2020년 9월 12일. 1시간.
- 무세중 인터뷰. 2020년 7월 20일. 1시간.
- 전경옥 인터뷰. 2020년 7월 27일. 1시간.

논문투고일 2020. 11. 15.

심사일 2020. 11. 22.

심사완료일 2020. 12. 05.

## A Gaze and Boundary on the Restoration of Traditional Local Culture and Arts

Kim, Joohee\* · Park, Eun-Hye\*\*

Senior Researcher, SungKyunKwan University\* · Lecture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suggestions for the restoration of *Gupabal Sandaenori*. *Sandaenori* means a mask dance which played at central districts in Korea. Currently handed down to Korea are *Yangju Sandaenori* and *Songpa Sandaenori*, as well as *Toegyewon Sandaenori* and *Aeogae Sandaenori* which have been reorganized today. Although *Gupabal Sandaenori* is not currently undergoing restoration work,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its restoration. Thus, This study interviewed an elderly artist, a traditional performance researcher, and a new traditional perform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first, continuous literature research is needed through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Second, this study proposes the expansion of *Sandaenori* into a festival rather than restor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produce a modernized stage of *Sandaenori*. Fourth, it must be provided through various school education programs. Fifth, *Sandaenori* dance should be emphasized. Sixth, it should be developed with various contents that young generation can relate to and identify with.

**Keywords:** *Gupabal Sandaenori*(구파발 산대놀이), Tradition(전통), Culture(문화), 지역문화(Local Culture), 복원(Reconstruction)

